

##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

이익섭 · 제4대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라 하였던가요. 국어원에 들를 때마다 멀리 우뚝 우람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늠름한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져옵니다. 운니동의 덕성여대 한쪽 귀퉁이를 얻어 ‘국립국어연구원’ 현판식을 할 때의 생각이 나서, 아니면 갖가지 난관을 겪은 후 이 자리에서 그 첫 삽을 뜨던 때의 감격이 떠올라서일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처럼 괄목할 발전을 해 온 경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국어원에서 출간한 저작물만 쌓아 놓고 보아도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국어생활》의 특집만 하여도 국어원이 생기지 않았다면 언제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싶고, 한자(漢字) 빙도 조사만 하여도 동양 삼국 그 어디에서도 이루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어느 사전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고생을 벗게 해 준 《표준국어대사전》의 출간이야말로 그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국어원이라는 중심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국어원이 중심이 되어 온 학계의 역량이 집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어원과 학계가 서로 제 일처럼 합심하여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학계에서 일찍부터 국어원과 같은 기구가 설립되기를 갈망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였는데 지난 20년 국어원은 그 오랜 염원이 진실로 필요했던 염원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말 20년을 이처럼 알차게 보낸 기구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정작 이제부터인지도 모릅니다. 국어원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으로 하여금 편안한 어문 생활을 하게 해 주는 일일 터인데 아직 그쪽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가지’를 ‘여러 가지’로 띠어 쓰는 것만 보면 기분이 상합니다. 일찍이 1933년에 붙여 쓰기를 하도록 한 것을 여태 이것 하나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입니다. ‘그동안’이며 ‘고등학교’며 또 ‘우리나라’까지 붙여 쓰게 되면서 누리게 된 편안한 마음을 ‘여러가지’에서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문장 부호만 하여도 전면적으로 새로 손질을 해야 하고, 우리 식물 이름도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일을 하려 하면 으레 훼방꾼이 나섭니다. 특히 이론의 바탕도 없이 이념으로 덤비는 경우는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국어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중심’이라 하였습니다. 늘 중심에 서서 당당히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30주년, 50주년, 그때마다 더 늘 름하고 더 당당한 국어원의 모습을 보여 주리라 믿습니다.